'해남 옥매산 쇠말뚝 뽑기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제67주년 광복절인 15일 해남군 황산면 옥매산 정상에서 일제 강점기에 박은 것으로 추정되는 쇠말뚝을 뽑기 전에 산신제와 고유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남 옥매산 정상 일제 쇠말뚝 제거

추진위, 광복절 맞아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아 해남 옥매산에서 일제강점기 민족정기를 끊기 위해 박은 것으로 추정되는 쇠말뚝〈사진〉이 제거됐다.

해남옥매산쇠말뚝뽑기추진위원회는 15일 해남군 황산면 옥매산 정상에서 '해남 옥매산 쇠말뚝 제거행사 및 평안기원제'를 열었다. 이 쇠말뚝은 지난 6월 주민제보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변남주·이윤선 교수가 확인했다.

쇠말뚝을 뽑아내기까지 당초 예상보다 어려움이 많았다. 석회로 단단하게 고정한 쇠말뚝(길이 53cm, 지름 2.7cm, 팔각기둥 형태)은 망치, 해머 자루 다섯 개가 부러져도 꿈쩍하지 않아, 굴착기까지 동원해야 했다.

변남주 교수는 "단단한 암반에 구멍을 뚫어 석회를 붓고, 쇠말뚝은 박은 뒤, 콘크리트로 위를 봉합하는 전형적인 일제시대 쇠말뚝 방식이다"고 말했다.

옥매산은 조선시기에 옥(玉)을 생산하고 전라우수영의 관아나 군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는 국가 봉산(封山)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군용비행기 제작에 필요한 알루미늄의 원료 채석을 위해 대규모 광산으로 개발됐다.

옥매산 광부들은 태평양전쟁 당시 제주도 공사에 강제동원됐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선박 화재로 청산도 인근에서 120여명이 수장된 아픔을 간직하기도 했다.

일제는 전국의 명산에 민족의 정기를 끊는다며 쇠말뚝을 박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제가 박은 것으로 추정, 지금까지 뽑힌 쇠말뚝은 전국적으로 대략 100여개로 추정된다. 대부분은 길이 90cm에 지름 3cm전후로 육각이나 팔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목포 유달산과 진도군 군내면 일대에서 확인됐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버려지는 방학 급식

광주교육청 추진사업 학생들 기피…절반 가량 쓰레기로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방학 중 학교급식 사업에 학생들의 참석률이 낮아 멀쩡한 음식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을 희망한 초등학교 2곳에서 지난달 하순부터 점심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급식 참석률은 미미하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를 위해 추진됐다.

B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교직원을 포함한 총급식 대상 246명 가운데 유치원생과 교직원을 제외한 초등학생 급식인원은 108명이다.

급식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이달 1일에는 49명, 2일에는 44명, 3일에는 39명, 6일에는 69명에 그쳤다.

초등학생 44명, 교직원 18명 등 총 62명이 신청한 P 초등학교도 비슷한 상황이다.

학생 44명 중 1일에는 23명, 2일에는 34명, 3일에는 18명이 참석했으며 6일에는 21명, 7일에는 29명 등이다.

학교에서는 신청인원에 따라 밥과 반찬 등을 준비하는데 이처럼 실제로 학교에 오는 인원이 달라 남은 음식은 모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이 집에 있다가 급식을 위해 학교에 나와야 하는 데, 점심시간을 망각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휴가가 겹친데다 일부 부모들은 급식비(2만2000원~3만3000원)에 부담을 느껴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 148곳 중 단 2곳만 방학중 급식 프로그램을 신청해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예견했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관련 예산도 30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는데다 정작 방학 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 등은 제외돼 사업 취지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었는데, 의외로 급식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다"며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만큼 시행 과정상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복절인데 태극기 왜 안내걸지?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단지 등 게양률 저조

광복절인 15일 광주·전남지역의 국기게양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훈청 등 기관단체의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 참여율이 낮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광복의 정신을 기리는 제67회 광복절 경축행사가 열리는 동안 광주·전남지역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국기를 게양한 가구는 극히 미미했다.

광주시 동구 지역 290여세대가 살고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이날 국기를 게양한 가구는 101동 7세대, 102동 5세대, 103동 8세대에 불과했다.

목포지역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1동당 국기를 게양한 가구는 한 자리수에 불과했으며, 신도심 지역의 일부 고급 아파트에는 아예 국기 게양대 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시장 관사가 있는 모 아파트 101동에는 시장 관사 등 단 2가구만이 국기를 게양했고, 부시장이 거주한 아파트에는 아예 게양대조차 없었다. 목포시의회 의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103동은 190여세대 중 단 2가구만이 국기를 게양했다.

홍성길(50) 바르기살기운동광주북구협의회 회장은 "광복절의 의미를 모른 채 단지 노는 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경일에 태극기를 내다는 것이 나라 사랑의 기본자세임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철희(52·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최근 독도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고 올림픽 축구로 인해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돼 안타깝다"며 "이럴 때 일수록 나라사랑의 마음과 태극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집에 태극기를 걸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고규석 기자 yousou@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日人 강제 구인 법적 대처 방안 검토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인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 일본인을 데려오기 위해 강제력 있는 법적 대처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뒤 본국으로 돌아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에 대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사건에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면서 (말뚝테러 사건의) 처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체결된 한·일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양국 법률에 의해 사형·종신형 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인도 청구의 대상이 되며 양국이 특정 범죄 행위를 같은 죄로 규정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즈키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소녀상) 옆에 한글로 '타케시마는 일본 땅', 일본어로 '다케시마(竹島·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단어)'라고 적힌 말뚝을 놓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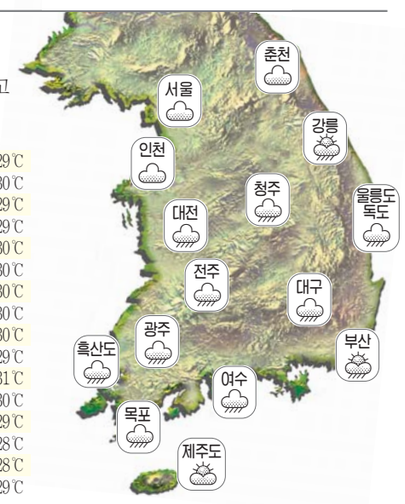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3분 해짐 19시 20분 달뜸 04시 16분 달짐 18시 08분

雨요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 주	흐리고비	25/29℃
목 포	흐리고비	25/30℃
여 수	흐리고비	26/29℃
나 주	흐리고비	25/29℃
완 도	흐리고비	25/30℃
구 례	흐리고비	25/30℃
강 진	흐리고비	25/30℃
해 남	흐리고비	25/30℃
장 흥	흐리고비	25/30℃
순 천	흐리고비	24/29℃
영 광	흐리고비	25/31℃
진 도	흐리고비	25/30℃
전 주	흐리고비	24/29℃
군 산	흐리고비	24/28℃
남 원	흐리고비	24/28℃
흑산도	흐리고비	25/2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먼바다	남~남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먼바다	남동~남	1.0~2.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경고	높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먼바다	동~남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1:19 13:12	06:46 18:42
여수	08:08 20:38	02:09 14:1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날 씨						
최저/최고	25/31	25/31	25/30	25/30	24/29	23/29

천둥·번개 동반 최고 80㎜ 비

16일 광주·전남지역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6일 광주·전남지역은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면서 흐리고 비가 내린 뒤 오후 늦게부터 점차 개겠다. 강수량은 30~80mm로 예상된다.

특히 곳에 따라 돌풍,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30㎜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아침 최저 24~26도, 낮 최고 28~31도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전해상에서 1.5~4.0m로 높겠고, 남해서부 전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

기상청은 17일에도 한차례 비가 내린 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계란 노른자 섭취땐 동맥경화 위험 온다

계란 노른자가 노인들에게는 동맥경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스펜스(David Spence) 박사가 혈관질환예방 클리닉 환자 1231명(평균연령 61.5세)을 대상으로 초음파로 경동맥 두께를 측정하고 흡연과 계란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일간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계란 노른자를 일주일에 3개 이상 먹는 사람은 2개 이하 먹는 사람에 비해 경동맥에 플라크(강화반)가 증가할 위험이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동맥에는 나이가 들면서 플라크가 증가하며 계란 노른자의 섭취가 플라크 형성 속도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란 노른자의 과다섭취와 흡연이 동맥경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면 계란 노른자가 흡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